

경로당 못가고 집에만…완도 노인 54% “우울해”

7.5%는 중증…고위험군 특별관리
군, 코로나19 긴급 심리방역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노인들이 심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완도지역 노인 2명 중 1명(53.8%)이 우울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돼 완도군이 긴급 심리방역에 나섰다.

9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노인 우울증 예방·관리를 위해 혼자 사는 노인을 포함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완도지역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31.4%인 1만 5946명이다. 이 가운데 3.9%인 2004명이 홀로 산다.

완도군은 5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 우울감을 알아보기 위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를 진행 중이다.

1차 검사 결과, 검사자 3982명 중 정상이 1842명(46.3%), 가벼운 우울감이 1843명(46.3%), 중증 우울감이 297명(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지역 노인 53.8%가 우울감 증세를 보였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평소에 자주 방문하던 경로당, 노인대학 등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무료함과 외로움이 우울증을 증폭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들 가운데 7.5%인 297명은 ‘중증 우울감’을 호소해 완도군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완도군은 이들을 3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1단계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재방문해 건강 체크와 상담을 통한 우울증 재검사를 한다. 2단계는 완도군정신건강 자문 의사(해남혜민병원장 최봉길) 심층 상담이 진행되며, 3단계는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속적 사례 관리가 이뤄진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정신건강 회복과 일상생활 조기 복귀를 위해 노인대학과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우울증 예방 교육과 자살예방 교육이 진행 중이다. 9월부터는 완도읍 등 4개 권역의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지역 노인 2명 중 1명이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완도군이 긴급 심리 방역에 나섰다.



무안군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

음압특수구급차 운영

초고성능 공기정화 필터 설치

무안군은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음압 특수구급차(사진)를 구입해 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차량에는 특수구급 장비, 음압 장치, 모니터링 장치 등이 구비됐다.

특히 0.1마이크로미터(μm) 크기의 미립자를 99.9% 제거하는 초고성능 공기정화 필터가 설치됐다.

내부 공기는 정화 장치인 ‘헤파필터’를 통해 걸러 외부로 배출하고 내부기압을 바깥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바이러스 등 호흡기 병원체의 외부 유출을 완전히 차단한다.

운전석과 환자가 있는 공간이 격벽으로 완전히 격리돼 의료진 2차 감염과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며 확진자 발생 시 안전한 이송이 가능하다.

김산 무안군수는 “음압 특수구급차 운영으로 의료진의 안전 확보와 2차 감염 방지가 가능해졌다”며 “감염병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춰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해남군, 기재부·과기부 공직자 초청 국비 사업 컨설팅 ‘눈길’

국고 건의사업 전략회의 개최
해남형 R&D사업 등 적극 추진
최대한 반영 위해 역량 총동원

해남군이 기재부와 과기부 공직자를 초청해 연 구개발(R&D) 사업 컨설팅을 하는 등 내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일 상황실에서

실·소장 및 사업담당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고 건의사업 전략회의를 열어 주진 현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 3명과 전남도 공무원 2명을 특별 초청해 주요 사업의 추진방향과 전략적 국고 확보 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하는 등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해남군은 해남형 R&D사업을 비롯해 국·공립 기

관 유치, 국책사업 발굴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정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고사업의 추진 전략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해남군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비 확보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중앙부처·전남도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방안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 상사회축제 2년 연속 ‘프로그램 연출’ 우수상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영광 불갑산 상사회축제가 뛰어난 프로그램 연출 능력을 과시하며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영광군은 불갑산 상사회축제가 제8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프로그램 연출 부문’ 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은㈔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관으로 축제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축제의 차별성과 발전성, 성과 등을 심사해 부문별로 시상한다.

심사위원들은 영광 불갑산 상사회축제가 프로그램 기획에서부터 연출·진행 전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축제로 열렸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은 영광 불갑산 상사회축제는 3년 연속 전남도 대표축제에도 선정될 만큼 콘텐츠가 풍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영광군은 오는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예정된 ‘제20회 상사회축제’에서도 더욱 풍성한 불거리로 선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이번 수상은 축제추진위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룬 성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영광 불갑산 상사회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 불갑산 상사회축제가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영광군 제공〉

목포 북항 등 선착장 5곳

신안군, 발열 측정 재개

신안군은 신코로나19의 지역 유입을 차단하고자 목포 북항 등 선착장 5곳에서 발열 측정을 재개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전남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섬으로 들어가는 암태 남강 선착장, 지도 점암, 압해 송공, 흑산, 목포 북항 선착장에 발열 측정소를 설치했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발열 측정을 하고 있다.

신안군은 400여명을 달하는 모든 경로당에 외부인 출입 자체 요청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